

도덕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때

전일광장

박안수

말뫼이카데미 원장
경제학박사



기미독립선언서에 이런 조문이 나온 기억이 있다.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實際)에서 ~ 중략 ~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道義)를 시대가 내하다’ 라는 문장이다.

조금은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도덕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문장이었다.

이제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총선 축제는 막을 내렸다. 당선된 후보는 선거 기간동안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시절 정치인이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함에도 역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불편한 사고와 행동을 걱정하는 형국들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대학교수는 올해 우리사회 소비트렌드 중 하나를 외모, 자산, 학력, 직업, 집안, 성격 등 6가지 경쟁력을 갖춘 육각형인간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리더인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요건에 육각형을 대입하면 가장 중요한 한모서리(角.面)는 아마도 고도의 도덕성과 정체성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직

능과 직업을 대표해야 하는 비례대표제의 경우 본질에서 다소 벗어나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계속 실시함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인지 한번쯤 반추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그런가하면 지역에 입후보한 몇몇 후보는 과거 윤리와 도덕과는 다소 거리가 먼 불법 행위와 수준이하의 저급한 막말, 혐의가 의심되는 편법 증여와 불법대출, 부동산 투기 등 국민들의 수준과 상식에 넘어서는 행동을 한 후보들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朝鮮)이라는 국가가 500년 이상 지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전라도 고부군수처럼 동학농민혁명의 도하선이 된 가렴주구(苛斂誅求)한 인사도 가끔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산 정약용님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한 관리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일례로 정령결백하여 정백리에 2회나 녹선(錄選)된 우리지역 장성출신 박수량님은 모친 봉양을 위하여 고부군수를 거쳐 형조, 호조판서에 이르는 동안 그의 정령결백함을 측정할 수가 없어 명종임금은 백비(白碑)를 하사하여 지금도 장성군 황룡면 신산에 묘비로 남아 있다.

그리고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열거하고 있

다. 과거 사람들이 자주 생각을 바꿀 때나 오리무중의 행동을 자행할 시에 정체성에 대하여 묻곤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정지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는 각각 나름 선명한 정체성이 있을 것인데 요즘 우리정치현실을 조망해 보면 진보나 보수를 쉽게 넘나들은 정치인들을 볼 수가 있어 이념의 벽이나 경계가 약간 흔들림의 느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의 존경과 인기를 받아 온 종교지도자들이 갑자기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할지 종을 잡을 수가 없어 보인다.

비록 TV드라마이지만 조선 선조 때 동의보감을 지은 어의(御醫) 허준은 과거 시험을 보러가는 도중 전염병이 발병한 고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치료하다가 과거시험 날짜를 넘겨 과거를 보지 못했던 것이 당시 의관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다.

어느 유명한 작가는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견해를 단순히 유전자에만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인간의 정체성이 그렇게 단숨에 결정될 수 없고 선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에 남겨지는 무수한 삶의 흔적, 특히 상처와 고통이 내면에 쌓이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처럼 각자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찾아 좀 더 성숙된 사회로의 발전하길 소망해 본다.

社說

전남 국립의대 신설, 소지역주의 안돼

김영록 지사 ‘경쟁자제’ 호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김 지사의 설명처럼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30년 묵은 한(恨)이면서 역사적 소명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 소지역주의를 넘는 지역민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김 지사가 의대 신설을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변경하면서 목포대 중심의 서부권과 순천대 중심의 동부권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간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당장 순천대는 이날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 방식에 반대하며 전남도를 끈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18일에는 전남도지사와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이 만나 해법도 논의한다. 이대로라면 전남도의 설명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더라도 양 지역간

후유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의대 신설과 관련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주장은 팽팽하다. 당장 동부권은 전남 제조업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에 최적의 의료부지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한다. 서부권도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돼 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7.5%에 이르러 치료가 능 사망률이 50%에 육박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과 함께 목포대와 순천대 등 대학의 성명전과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뜨겁다.

무조건 자기 지역이 옳다는 소지역주의는 공멸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각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대학 등은 국가적 인프라인 의대 신설이 전남 발전이라는 큰 잣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적 논리나 감정적 대립을 배제시키는 대승적 판단이 그 첫걸음이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동부권이나 서부권 어느 한 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 절실한 광주 버스 준공영제

채은지 의원 “조례 개정 시급”

매년 1400억 원이 소요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시의회 등은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이나 노동자인 버스기사의 삶의 질을 올리기 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만 증가 시켜준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배포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적 인건비 정산 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 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조치 82억 8300만 원이 내려졌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광주시는

3709억 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10개 업체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물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광주시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틈타 업체들만 배불리기를 한 셈이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건 시내버스 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시내버스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투입 보조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서울시 등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업계 퇴출 등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조례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 시내버스는 150만 광주시민의 발이다. 시내버스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실질적 주인이 바로 광주시민이라는 점을 광주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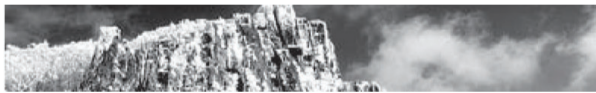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17일 제주시 용강동 마방목지에서 천연기념물 347호 제주마가 올해 처음 초지로 힘차게 뛰어 가고 있다. 제주축산진흥원은 총 108마리의 제주마를 방목지에 풀어 오는 10월까지 제주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를 재현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서석대



뼈와 살이 바뀐다는 뜻의 환골탈태(換骨奪胎)라는 사자성이 있다. 원래는 도가(道敎)의 전설에서 온 말이다. 도가에서는 수련에 의해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환골탈태라고 했다. 이에 관해 중국 송나라 시인 황정견이 자신의 독자적인 시가 창작법을 환골법과 탈태법이라고 표현했다. 황정견은 “시의 뜻은 무궁하지만 사람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재능으로 수많은 뜻을 좇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선배 시인의 작품에서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 말을 만드는 환골법과 작품의 뜻을 본받아 시구로 고쳐 표현하는 탈태법을 쓰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호랑이 군단의 환골탈태

환골탈태는 여기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는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기존 작품의 구조나 아이디어를 차용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창작 기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은 의미로 확장돼 개인의 성장과 변화, 조직의 혁신, 사회의 변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때가 있다. 스포츠 약팀을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 선수들을 훈련으로 성장시키거나 트레이드·FA 영입 등으로 팀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도 하나의 맥락이기도 하다.

올시즌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환골탈태했다고 할 만

하다. 16일 현재 정규시즌 14% 가장 소화한 시점에 14승5패로 단독 1위에 올라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승2무10패로 8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혀 다른 팀이 됐다. 외야수 나성범을 시작으로 주축선수뿐 아니라 백업요원까지 7명이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지만, 흔들림없이 고공행진 중이다. 심재학 단장이 주도하는 프런트 시스템에 이범호 감독의 초보 답지 않은 운영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강팀으로 변모했다. 베스트 전력이 아닌데도 팀 평균자책점(3.04), 타율(0.300), OPS(0.836) 모두 1위를 달릴 정도로 투타 밸런스가 좋을 만큼 팀스가 두꺼워졌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외국인투수들의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올해는 여러 교차 검증 거쳐 영입한 월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이 연착륙에 성공하며 선발진이 안정됐다. 마무리 정해영을 필두로 광도규, 전상현, 최지민, 장현식 등의 불펜도 탄탄하다. 타선에서는 방출 아픔을 겪은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을 영입한 건 신의 한수였다. 서건창이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면서 2루수와 1루수를 번갈아가며 맡아 팀 야수 운영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제 시즌 초반이다. 남은 경기가 아직은 많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끝낼 때까지 꾸준히 유지해 지역 팬들에게 우승을 선사하길 기대해 본다. 최동환 취재2부 문화체육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